

가치관의 비교연구

2014.11.10. 일

목차

가치관

- 가치 & 가치관
- 가치관의 수준
- 문화와 가치관

가치관 이론

- H. C. Triandis
- G. Hofstede
- R. Inglehart

요약 및 결론

- 요약
- 결론

가치관

- 1) 가치 & 가치관
- 2) 가치관의 수준
- 3) 문화와 가치관

가치 & 가치관: 정의

❖ 가치

-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,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(정범모, 1973)

❖ 가치관

- 가치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로서, 여러 행동 중에서 선택 기준이 되는 것 (임경복 외, 1995)
- Ex) 직업 가치관, 가족 가치관, 스포츠 가치관, 주거 가치관, 의복 가치관, etc.

가치 & 가치관: Ex) 직업 가치관

<http://youtu.be/dq9jaKYZCCA>

가치관의 기능 및 '태도'와의 비교

❖ 가치관의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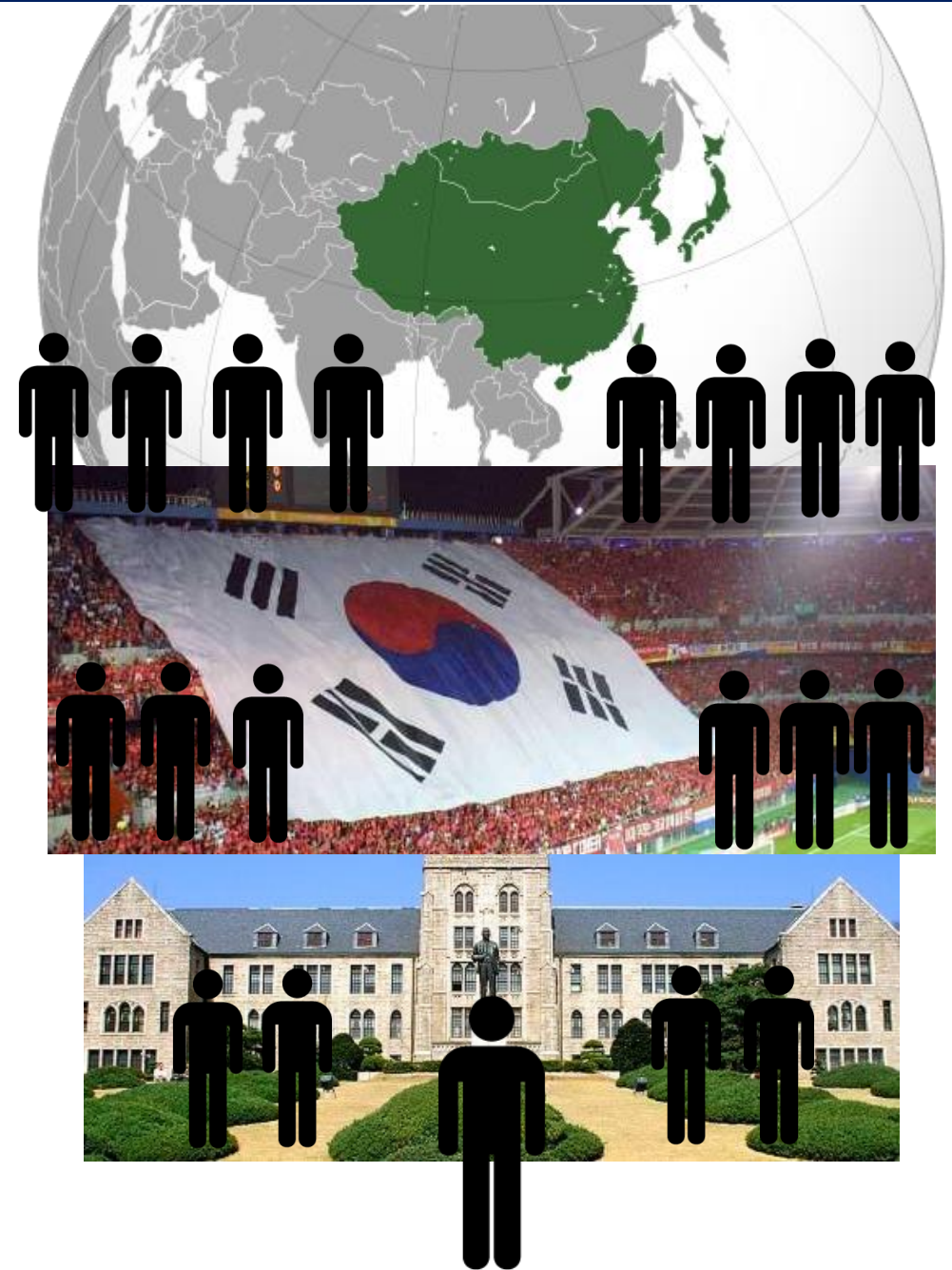
- 개인의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중시하고 어떠한 철학을 지니고 생활하는지를 알려 주며,
- 다양한 상황에서 변화되는 행동에 놓여 있는 일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.

❖ '태도'와의 비교

- 가치관은 태도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자의 행동에 대한 예견력을 지님.
- **태도**: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, 양태
- **가치관**: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추상적인 이념, 행동철학

가치관의 수준

- 개인
- 조직
- 국가
- 문화



문화와 가치관

- 각 문화의 심층에는 가치지향성이 자리잡고 있음.
- 사회성원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이 보편적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, 그 사회의 전통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(한세희, 2003).
- Ex) 노인에 대한 공경, 효(孝), 장유유서(長幼有序)



가치관 이론

- 1) H. C. Triandis
- 2) G. Hofstede
- 3) R. Inglehart

Harry C. Triandis



- 해리 C. 트리안디스(1926~): 그리스 출신 미국 사회심리학자
 -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-Champaign 심리학과 명예교수
 - 비교문화심리학(cross-cultural psychology) 연구에 공헌
 - 연구분야: 문화에 따른 태도, 규범, 역할, 가치의 인지적 측면들
 - 주요저서: *Attitudes and Attitude Change* (1971),
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(1972),
Culture and Social Behavior (1994),
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(1995),
Self-Deception in Politics, Religion, and Terrorism (2009)

문화유형

- 개인주의
- 집단주의

- 트리안디스는 세계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하였음(Hui·Triandis, 1985; Triandis, 1988).
- 이는 '가치관'에 주목하여 '문화'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심리학에 접목시킨 것(한민 외, 2009).

개인주의

- 자주성, 독립성, 자립심과 같은 가치들이 일반화됨.
 -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의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립성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함.
- 개인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내집단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거리감을 느낌.
 - 소속하는 내집단의 수가 집단주의 문화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음.
 -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집단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종속시키려고 하지 않음.
- Ex) 미국, 프랑스, 스웨덴, 영국 등

집단주의

- 조화, 공손함,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등이 강조됨.
-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의 사람들은 공손하고 사람들과 화합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함.
-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개인주의 문화의 구성원들보다 자신들이 내집단의 부분이라고 더욱 쉽게 느낌.
-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소속하는 내집단의 수는 적지만, 내집단에 대한 소속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.
- 따라서 개인은 소속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 더욱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.
- 사람들은 자신을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, 자신의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킴.
- Ex) 한국, 일본, 중국, 이스라엘 등

- 트리안디스의 개인주의-집단주의 차원은 대인교류의 양상, 조직의 특성, 의사소통의 특성, 사고의 형태, 분배 양식, 갈등의 진행 및 해소, 자기에 대한 규정 양식 등에 관한 문화권의 차이를 잘 설명함.
- 사회심리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틀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.

- 최근에는 개인주의-집단주의 문화 구분이 갖는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의 치밀성, 수직-수평주의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도 함께 고려되고 있음(Triandis, 1995).
- Ex) 수직주의-수평주의
- 수직적 문화: 내집단을 위해 봉사, 희생하고 개인의 의무,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짐. 성원 간의 위계질서와 지위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 역시 당연함.
- 수평적 문화: 내집단 성원들 간의 사회적 응집성이 강하고 집단적 단위의 정서가 잘 받아들여짐. 사람 간의 동등성 역시 당연시되는 특징을 지님.

Geert Hofstede



- 기어트 홉스테드(1928~): 네덜란드 사회심리학자
 - 네덜란드 Maastricht University(마스트리흐트대학교) 명예교수
 - 1965-1971년, IBM(유럽지사) 인적자원 연구부서 설치 및 운영
 - 1967-1973년, IBM의 전 세계 자회사들 사이의 국가적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대규모 조사연구 수행
 - 국가문화지수를 활용한 비교경영학(comparative management)을 창시
 - 주요저서: *Culture's Consequences* (1980),
Cultures and Organizations (1991)

VSM(Values Survey Module, 가치조사모듈)

- 홉스테드가 IBM 유럽지부의 인적자원 담당부서를 총괄하던 당시, 세계 각 지부가 속해있는 문화 환경에 따라 직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.
- 1967-1973년, IBM에 근무하는 40개 국 10만여 명의 현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가치성향에 대한 문화 차이를 비교했음.
- 국가 간 실질적인 문화차이가 존재하며, 문화에 따라 각기 알맞은 관리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.

-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3년 모듈 조사
- 전 세계 70여개국의 IBM 직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함.

문화적 가치지향성: 5가지 차원

- 분석 결과,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는 크게 다섯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.
- 개인주의/집단주의
- 권력거리
- 남성성/여성성
- 불확실성회피성향
- 시간지향성

개인주의(individualism)/집단주의(collectivism)

- 개인주의

-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다소 느슨하여, 자기 자신과 가족(핵가족의 좁은 범위)을 스스로 돌보도록 기대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성
- 자아와 타인들 간, 그리고 가까운 내집단과 그 밖의 타인들(외집단) 간에 벽이 있음.

- 집단주의

- 출생 이후 강한 결속력의 배타적 내집단들에 속하여,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 대가로 평생토록 보호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성
- 자기와 내집단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함. 내집단에 속하지 않은 타자(외집단)에 대해서는 차별 존재.

권력거리(power distance)

- 권력거리: 사람들 사이의 의존관계의 척도. 계층 간 감정적 거리감의 정도를 나타냄.
 - 사회 내에서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혹은 편중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가를 나타냄.
 -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집권화에 대한 선호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.
- 큰 권력거리
 - 선뜻 다가가서 쉽게 마음을 털어 놓고 대화하기가 어려우며, 반대의견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.
 - 권력의 불평등을 쉽게 용인하는 태도를 가짐.
- 작은 권력거리
 - 계층 간 감정적 거리감이 적어서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며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임.
 - 상호 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담하는, 상호의존관계가 주를 이룸.

남성성(masculinity)/여성성(femininity)

- 사회나 조직 구성원들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하는지를 나타냄.
- 남성성이 강한 문화
 - 남녀 간 역할 분담이 훨씬 더 뚜렷이 구별되어 있음.
 - 남성은 거칠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물질적 성공에 초점을 맞춤.
 - 여성은 보다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삶의 질에 관심을 둬م.
- 여성성이 강한 문화
 - 남녀 간 성별 역할 차이가 다소 덜함.
 -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 관계유지를 중시하거나 구성원에 대하여 배려하는 경향.
 -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삶의 질을 강조.

불확실성 회피성향(uncertainty avoidance)

- 구성원들이 모호한 상황이나 불확실성을 용인하는 정도를 나타냄.
-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
 - 직업의 안정성이나 직급의 승진패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. 관리자들이 확실한 지시를 내려 줄 것을 기대함.
 - 미래의 일에 대한 사전예측을 강하게 희구하므로,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경향이 큼.
-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
 -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,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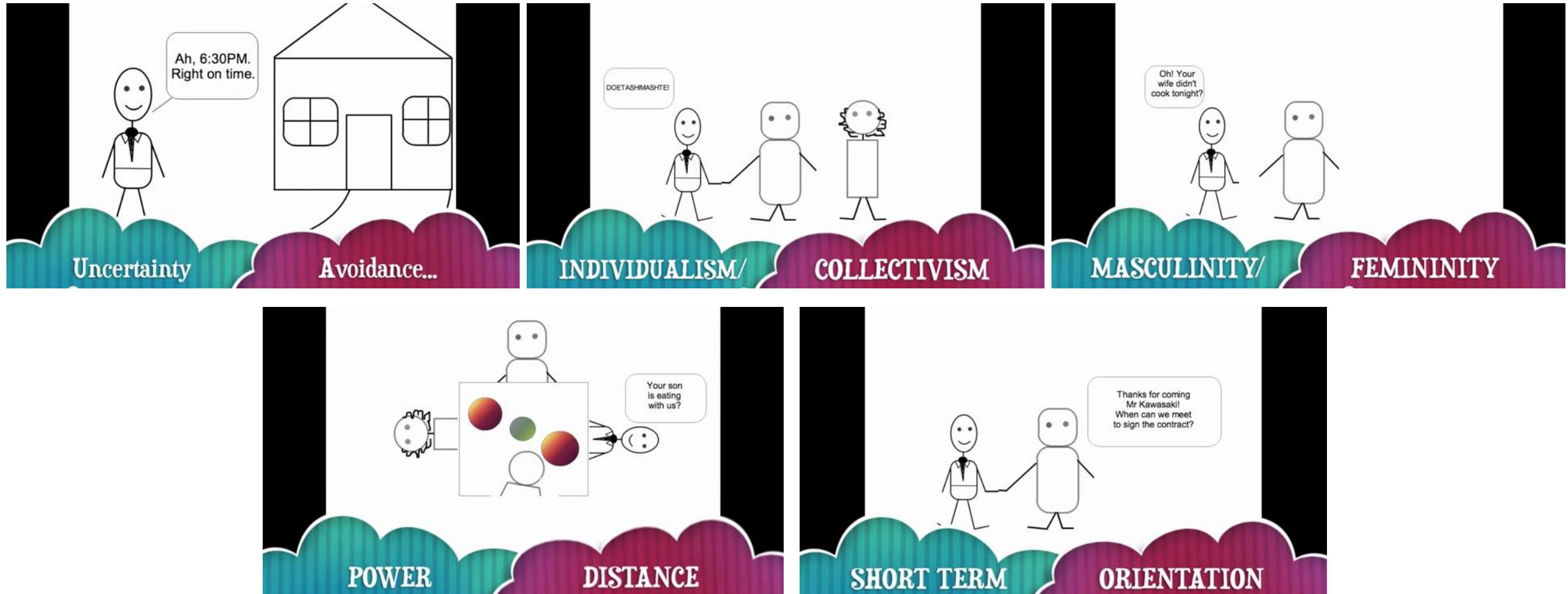
시간 지향성(long/short-term orientation)

- 유교문화권과 여타 문화권의 미묘한 문화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후에 추가된 것으로, 사회의 시간범위를 설명함.
- 장기지향적 문화: 미래지향적이며, 동적임. 역경에 맞서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인내, 관계를 신분에 따라 서열화하고 이 질서를 준수, 근검절약, 수치심에 대한 지각 등, 보상을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 조성 등의 특성을 지님.
- 단기지향적 문화: 과거 및 현재지향적이며, 정적임. 끈기와 성실, 체면의 유지, 전통의 존중, 안부인사, 호의, 선물 교환 등을 중시함.
- 이러한 가치들은 모두 유교적 핵심가치이지만, 이 중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인 것들을 장기지향성으로, 보다 과거 및 현재에 초점을 둔 정적인 것들을 단기지향성으로 구분한 것임.

홈스테드 가치차원의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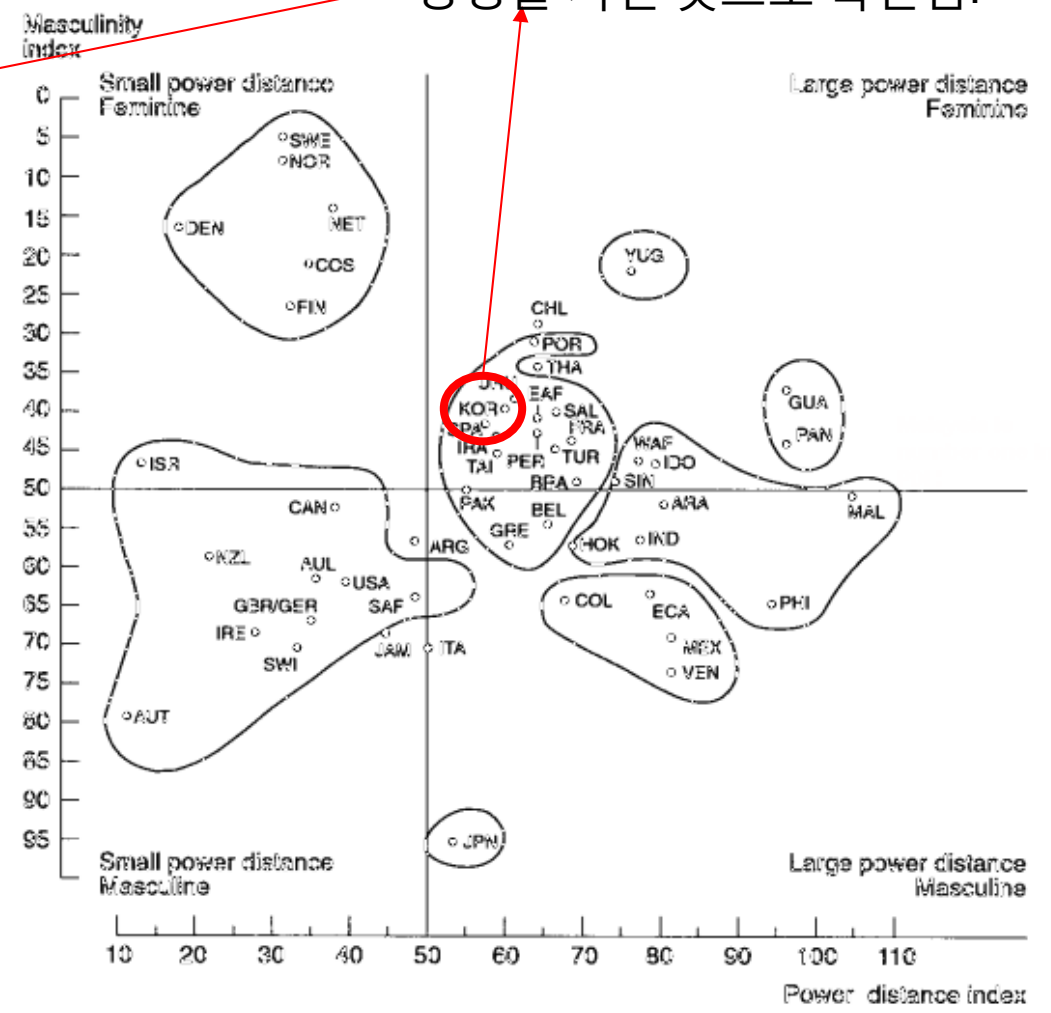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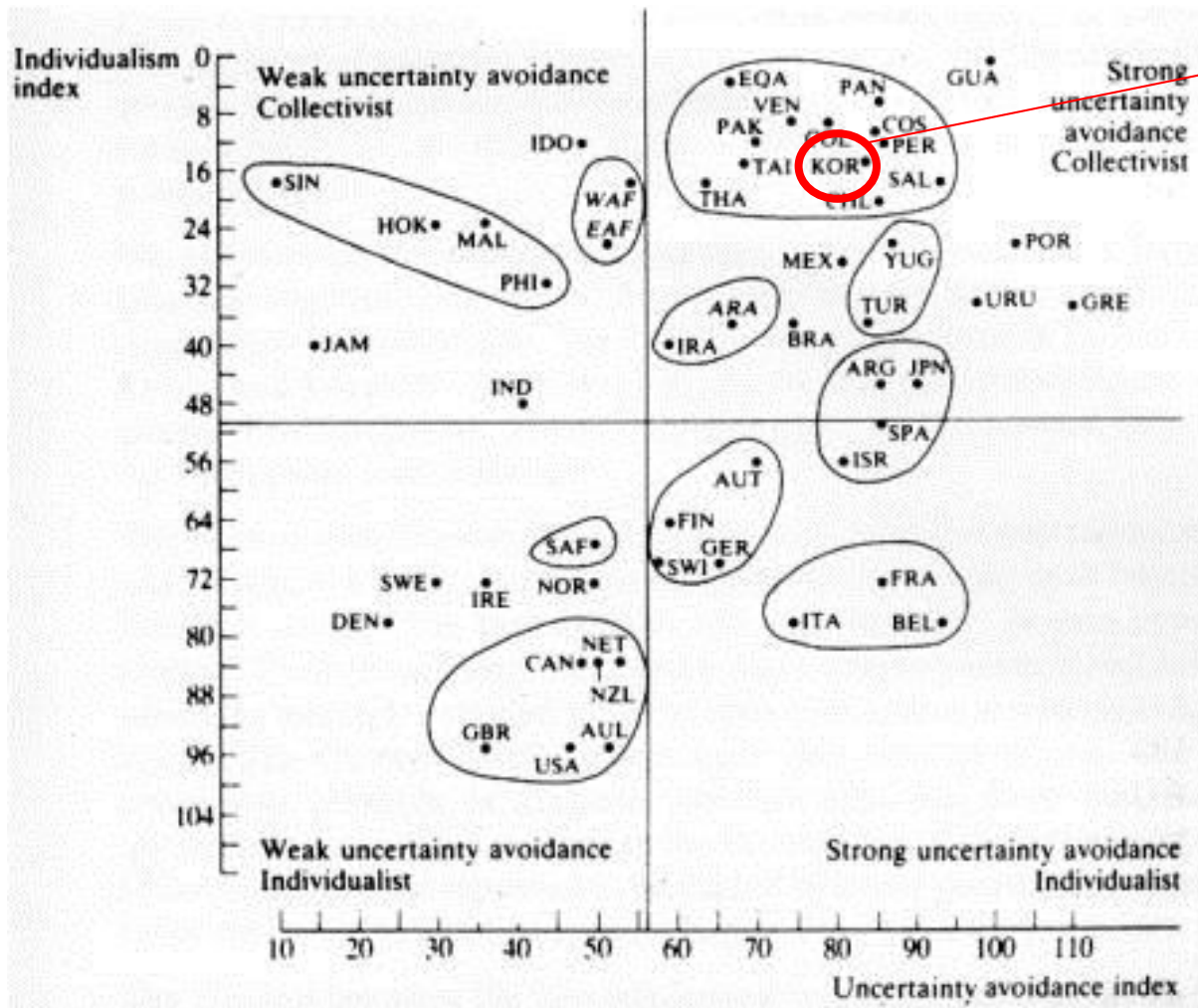
<http://youtu.be/6gJzRSol7tA>

홈스테드 가치차원의 이해



홉스테드 가치차원의 이해

한국은 높은 집단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, 중간 이상의 권력거리와 남성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됨.



Ronald Inglehart



- 로널드 잉글하트(1934~): 미국 정치학자
 -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과 교수
 - 세계가치조사(World Values Survey) 총 책임자
 - 연구분야: 정치심리학, 비교정부 및 비교정치, 정치발전
 - 주요저서: *The Silent Revolution* (1977),
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(1990),
Value Change in Global Perspective (1995),
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(1997),
Modernization,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(2005)

WVS(World Values Survey, 세계가치조사)

- 잉글하트 등의 주도하에 1981년 처음 시행된 조사.
 - 1981년 이래로 약 5년 주기로 지속되어 왔음.
 - 6차 조사(2010-2014년)의 경우 전 세계 57개 국가의 18세 이상 성인 85,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음.
- 다양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, 가치관의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.

가치구분

- 잉글하트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함을 주장.
-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두 단계의 문화적 근대화(산업화와 후기산업화)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.

- 전통적/세속적·합리적 가치
- 생존/자기표현 가치

전통적/세속적·합리적 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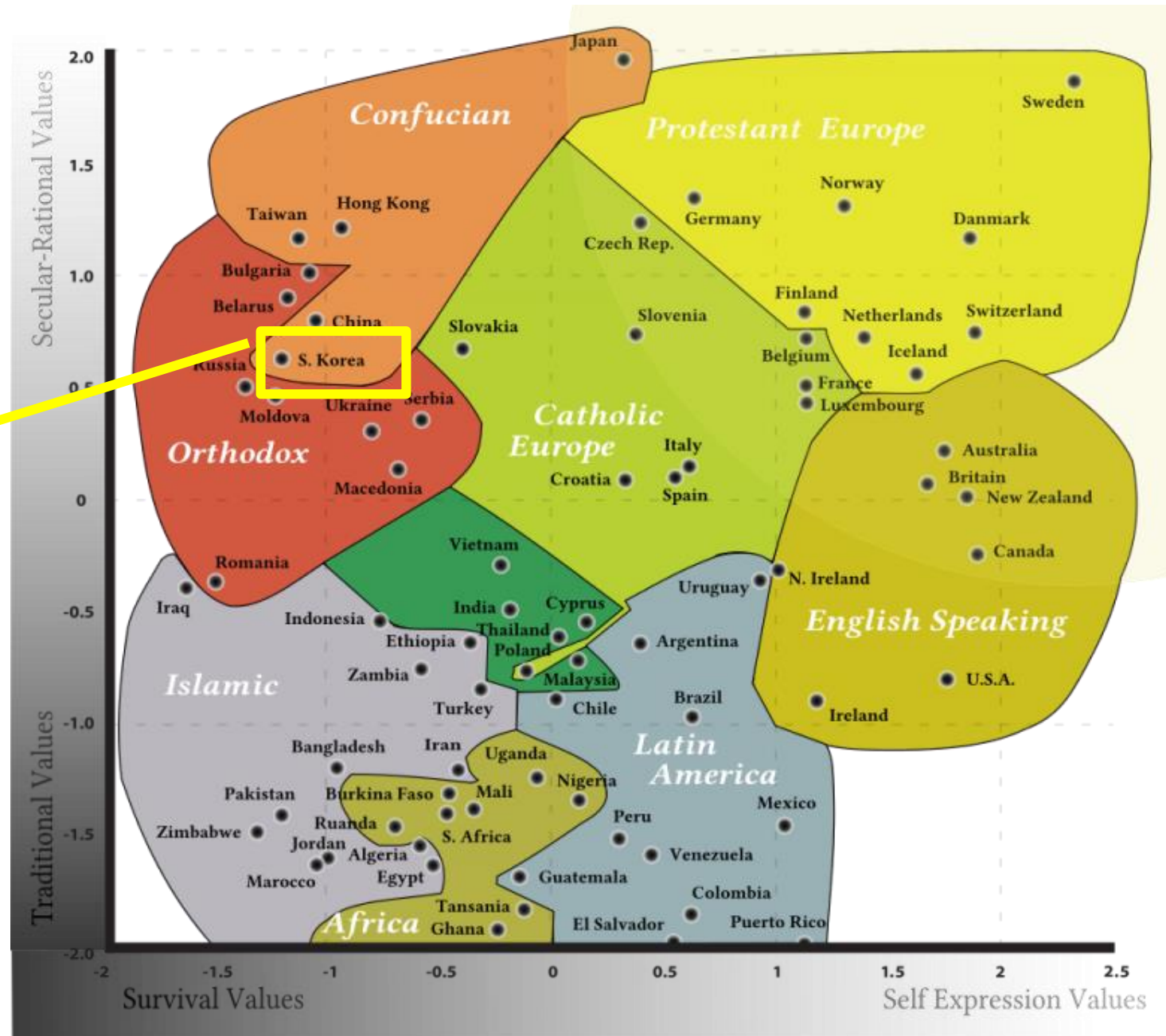
- 첫 번째 단계는 농업에서 산업으로의 이동에 기인한 것으로,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적·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함.
- 전통적 가치
 - 부모-자식 간의 관계, 권위에의 순종, 절대적 기준, 종교, 전통적인 가족 가치 등을 중시.
- 세속적·합리적 가치
 - 전통적 가치와는 반대로, 이혼, 낙태, 안락사, 자살 등,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수용되지 못했던 것들을 수용함.
 - 세속적·합리적 가치의 성장은,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근원에서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근원으로 권위기반의 이동을 가져옴.

생존/자기표현 가치

- 두 번째 단계는 후기 산업화의 등장을 반영하며, 생존적 가치에서 자기표현 가치로의 이동을 의미함.
- 생존 가치
 - 빈곤이나 전쟁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나 치안 유지 등을 중시
- 자기표현 가치
 -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정치 참여, 다양성 존중, 환경보호, 삶의 질 등을 중시

문화지도

- 한국은 세속적·합리적 가치 & 생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유교문화권으로 구분됨.



요약 및 결론

- 1) 요약
- 2) 결론

요약

- 트리안디스

-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로 구분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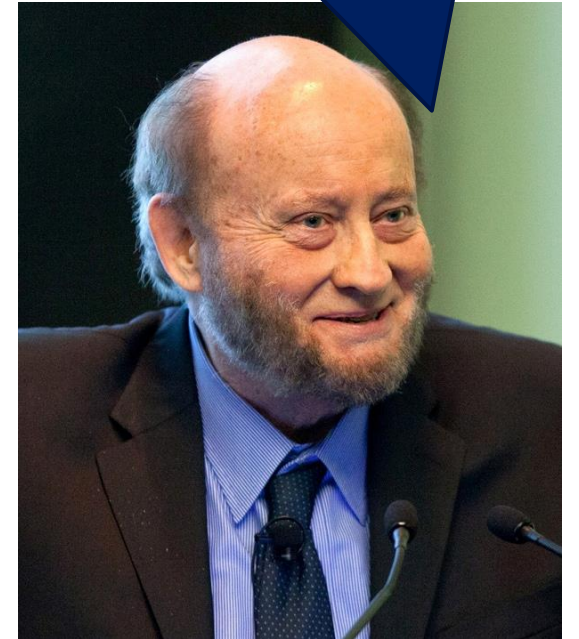
- 흠스테드

- 개인주의-집단주의, 권력거리, 남성성-여성성, 불확실성 회피성향, 시간지향성의 다섯가지 차원으로 각 문화의 가치지향성을 나눌 수 있다.



- 잉글하트

- 전통적-세속적·합리적 가치, 생존-자기표현 가치의 두 가지 기준으로 문화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.



결론

- 문화는 한 사회의 거울.
 - 각 문화의 심층부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관은 사회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함.
 -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모여, 사회의 문화를 재구성하게 됨(김선우·김난도, 2010)
- 그러나 한 사회에서 특정한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하여,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지향을 지니는 것은 아님.
 - 즉, 문화 차원 이론들은 국가 간 차이를 구분케 해주나, 개개인의 특성은 정의하지 못함. 문화의 전반적 특성과 맞지 않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.
 - 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이론들은 문화 내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며, 전체적인 정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음.